

연구논문

조선후기 가문소설에 나타난 순환론적 역사관의 구현과 그 의미

정재윤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교수, 고전산문 전공

faceless4925@gmail.com

I. 서론

II. 가문소설의 순환론적 역사관 구현 양상

III. 가문소설의 순환론적 역사관 구현의 의미

IV. 결론

I. 서론

17세기 한글소설의 창작부터 시작된 ‘가문소설’이라는 유형은 20세기 초 반까지 생명력을 유지하였다. 이 작품들은 일대기를 벗어나 누대기를 통한 ‘서사의 무한확장’을 구현하였다.¹ 이는 후일 남성 주인공과 여성 주인공을 축으로 하는 양문록으로 변모를 보이거나,² 삼문록과 삼대록의 복합적 구현³이 보이는 등 서사 확장 방식의 변이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서사 확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크게 변하지 않는 것은 가문이 이룩하는 성취의 구조이다. 세대를 중심으로 가문소설을 살펴보면, 가문은 세대를 거치면서 지속적인 상승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몰락한 가문 또는 미미한 가문에서 뺀어난 첫째 세대의 인물이 높은 벼슬에 오르고 여러 갈등 끝에 국가의 대신으로 자리매김한다. 이후 이 가문의 둘째 세대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되며 전 세대가 이루었던 성취와 대등하거나, 심지어 그 이상의 성취를 보여 주면서 가문의 번영을 이끈다. 그리고 셋째 세대의 인물들은 성취를 반복적으로 보여 주며, 서사의 종결에서는 가문의 후손들을 기록함으로써 서사가 종식되어도 가문의 부흥과 성취는 지속될 것이며 영원할 것임을 보인다.⁴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3S1A5B5A17086798). 2025년 온지학회·한서대 동양고전연구소 공동 동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글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한 논문이다. 토론해 주신 제주대 박기환 선생님과 경상대 김민정, 장시광 선생님에게 감사드린다.

- 1 정길수, 「17세기 長篇小說의 형성 경로와 장편화 방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4), 205쪽.
- 2 조용호, 『삼대록소설연구』(서울: 계명문화사, 1996); 김은일, 「양문록계 소설연구」,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8).
- 3 유인선, 「〈명주보월빙〉 연작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21).
- 4 작품에 따라 이미 일정 수준으로 가문의 성취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작품이 시작되는 경우

그러나 가문 성취의 지속적인 상승과 유지는 바로 가문이 충성을 바치는 왕조의 존속을 전제로 한다. 가문소설에서 가문원의 출세는 대부분 과거(科擧)를 통해 이루어지며, 과거는 왕조가 주관하는 합법적인 권력 획득 수단이다. 이는 가문소설에서 구현되는 가문의 성취가 왕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가문소설에서 가문의 성취는 왕조의 존속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작품이 배경으로 삼는 중국 왕조⁵의 역사적 전개에 비추어 볼 때, 만약 소설이 역사적 전개를 그대로 따를 경우 가문은 영원한 번영을 누릴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가문소설의 욕망과 역사적 전개 사이에는 근본적인 모순이 존재한다. 물론 향유층은 이러한 모순을 중요하게 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⁶ 또한 많은 가문소설은 시대적 배경에 수반하는 역사적 전개를 언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하거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작품을 종결하는 방식을 통해 이러한 모순을 노출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가문소설 중에서는 가문이 충성을 바쳤던 왕조가 역사적 전개

도 있으며, 작품 초반부터 흥성하던 가문이 몰락하는 양상을 보여 주기도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가문의 영화와 성세는 유지된다. 즉, 세대에 따라 가문 성취가 올라간다는 점은 다르지 않다. 전자의 경우 〈유이양문록〉과 〈명주보월빙〉, 후자의 경우 〈조씨삼대록〉이 대표적이다. 박숙례, 「〈유이양문록〉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2004); 위의 글; 허순우, 「〈현몽쌍룡기〉 연작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9)을 참조하였다.

- 5 가문소설의 시대적 배경은 중국의 정통 왕조, 특히 북송과 명나라가 다수를 이룬다. 이에 대한 계량적 정보는 주수민, 「조선 후기 가문소설의 시·공간 배경과 재위 황제」, 『어문연구』 48-2(2020), 89쪽을 참조하였다.
- 6 이지영은 한글장편소설의 향유층이 소설의 내용과 역사의 기록의 일치 여부를 굳이 따지지 않았으며, 역사로 위장된 허구 속에서 현실의 이야기를 풀어낸다는 점에서 일종의 가상세계라고 보았다. 또한 역사적 사실을 활용하는 이유를 사실 효과와 현실에 대한 환유로 정리하였다. 이에 대한 논의는 이지영, 「조선시대 한글장편소설에 구현된 가상세계로서의 역사」, 『고소설연구』 50(2020), 이지영, 「낙선재본 고전소설에 나타난 허구적 이야기 세계의 서사전통」, 『장서각』 49(2022)를 참조하였다.

처럼 몰락하고 다른 왕조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중요하게 서술되었거나 다른 왕조가 도래할 것임이 작품에서 언급된 작품들의 경우, 어떠한 연유로 이러한 멸망을 언급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가문소설의 주된 욕망이라 할 수 있는 영원한 부흥을 회생해서라도 드러내고자 하는 바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전개에 의한 멸망의 작품 내 구현은 단순히 역사적 전개를 수용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당대인들이 생각하는 역사적 법칙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역사적 담론을 수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가문소설 중 역사적 전개에 의한 왕조의 멸망과 교체가 작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그 작품은 당대의 지배 이념인 유학에서 역사를 보는 담론이라 할 수 있는 순환론적 역사관이 구현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순환론적 역사관은 계절이 순환하는 모든 문명권에 존재하며, 이는 계절의 순환과 역사의 진행과 유사할 것이라는 유비적 사고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순환론적 역사관 자체는 역사가 되풀이되며 진행된다고 믿는 담론이며, 이러한 역사관은 역사를 진보와 목적이 있는 과정으로 보는 선형적 역사관과는 대비되는 양상을 보인다.⁷

이러한 순환론적 역사관 중, 유학의 순환론적 역사관은 바로 왕조의 교체를 중심으로 설명된다는 점에서 다른 순환론적 역사관과는 변별점을 가진다.⁸ 왕조는 천명(天命)을 받은 자에 의해 설립된 후, 덕에 의한 통치로 나라

7 앞에서 언급한 '가문의 부흥과 성취는 지속될 것이며 영원할 것'임을 암시하는 가문소설의 일반적인 서사 종결은 가문의 궁극적인 목적인 가문의 번영과 영광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목적성을 띠는 선형적 역사관의 양상과 유사하다.

8 순환론적 역사관을 지녔다고 볼 수 있는 주요한 문명권역으로는 고대 인도와 페르시아 지역, 고대 그리스 지역이 있다. 인도의 경우 우주를 순환의 주체로 삼았다. 페르시아 지역의 경우 당대를 쇠퇴기라 보았으며, 자신들의 상고시대를 이상적인 시대로 보고 쇠퇴가 끝나고 소멸하면 또 다른 이상적인 시대가 올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리스의 경우 사회가

가 잘 다스려지는 시대인 치세(治世)를 이룩한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왕조는 ‘자연스럽게’ 덕을 잃게 되어 쇠퇴에 접어들고, 결국 왕조는 멸망하여 난세(亂世)에 접어든다. 그리고 이러한 난세는 천명을 받은 인물이 세운 다른 왕조의 설립으로 인해 치세를 이룩하고 다시 같은 과정이 반복된다는 논리이다.’ 즉, 영원히 유지되는 ‘치세’나 ‘난세’는 없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치세에서 난세로 향하거나, 난세에서 치세로 향함은 자연스러운 것이라 여기는 인식이다.¹⁰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치세와 난세를 나눌 수 있는 일차적인 기준점은 왕조의 창립과 멸망이라 할 수 있다. 창립을 기준으로 치세가 시작되며, 멸망을 기준으로 난세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기준으로 치세와 난세를 분절하고자 한다.¹¹

이러한 논의와 규정을 통해 가문소설을 볼 때, 작품에서 순환론적 역사가 구현되는 방식을 두 가지 양상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치세와 난세, 그리고 다시 치세가 이루어지는 치난순환의 양상이다. 다른 하나는 난세가

홍망성쇠를 반복한다고 여겼다. 데이빗 베빙턴(지), 김진홍·조호연(역), 『역사관의 유형들』(서울: 한국기독교생활 출판부, 1997), 47~74쪽

- 9 유학의 논리에 따르면, 천명의 변화는 통치자의 덕에 따라 좌우되며, 따라서 덕을 잃은 통치자에게는 천명이 사라진다. 이는 천명이 사라지면 왕조가 몰락하고 천명을 받았다고 인식되는 당대의 덕 있는 자가 왕조를 바꿀 수 있는 논리적 기반이 되었으며, 이러한 인식은 이 논문의 대상으로 삼은 작품 내에서도 존재하여 통치자의 덕성과 능력에 대한 서술을 통해 국가의 몰락을 보인다. 또한 이민족의 경우 유학에서는 덕에 의한 통치를 하지 못한다고 인식되기에 이들의 통치는 난세로 규정되었다.
- 10 역사관에 대한 논의는 데이빗 베빙턴, 앞의 책(1997)과 전해중, 「중국인의 전통적 역사관」, 『사관이란 무엇인가』(서울: 청람문화사, 1980), 195~197쪽을 참고하였다.
- 11 통치의 우월함과 열등함으로 치세와 난세를 규정하려면, 어떠한 통치가 우월한지 열등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이 논문에서는 치세와 난세를 명정한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정통왕조의 창립과 멸망으로 이분화하여 규정하고자 한다.

예정되었고, 자연스럽게 도래할 것임을 보여 주는 양상이다.¹²

이 논문에서는 전자의 양상이 두드러지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소현성록〉과 〈천수석〉 연작을 선정했고, 후자의 양상이 두드러지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유효공선행록〉 연작과 〈보은기우록〉 연작을 선정하였다.¹³ 이 작품들을 통해 순환론적 역사관의 구현 양상과 이에 대한 가문의 반응을 분석하고, 가문소설에 나타난 순환론적 역사관의 구현이 작품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가문소설에서 순환론적 역사관의 구현이 가지는 의미를 탐구하고 가문소설의 역사담론 활용 방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
- 12 후자는 난세 이후에 대한 전망이 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순환론적 역사관의 전제가 치세에서 난세로 향하거나 난세에서 치세로 향함은 자연스러운 것이라 여기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두 작품이 비록 치세와 난세의 구도만 등장하였음에도 이러한 분류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를 도식화한다면 ‘치세—난세—서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관념적으로 인젠가는 도래할 치세의 구도가 된다.
- 13 연구 대상에 있는 주요 작품들은 전부 탈초본이 출간되었다. 그러나 〈화산선계록〉은 아직 탈초본이 전부 출간되지 않았고, 〈보은기우록〉은 교주가 미진하다. 따라서 연구에 사용한 자료는 출간된 탈초본을 기반으로 하되, 원전자료를 활용하여 미진한 면을 보완한다. 논문에서 언급되는 작품들은 인용할 때 탈초본이 기반으로 한 이본의 권수, 쪽만 표기하며, 탈초의 교정이나 한자 병기, 밑줄 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기입하였다. 참고한 탈초본은 다음과 같다. 국학진흥연구사업추진위원회(편), 『명형정의록』(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임치균·강문중·김수연·홍현성(교주), 『보은기우록』(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9); 임치균·강문중·김정원·이지영(교주), 『턴슈석』(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1); 조혜란·정선희(교주), 『소현성록』(서울: 소명출판, 2010); 최길용(교주), 『유효공선행록』(고양: 학교방, 2018); 최길용(교주), 『화산선계록』(고양: 학교방, 2023); 한길연·김지영·정언학(교주), 『유씨삼대록』(서울: 소명출판, 2010)이다.

II. 가문소설의 순환론적 역사관 구현 양상

1. 치난의 순환

이 절에서는 〈소현성록〉과 〈천수석〉 연작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소현성록〉은 송나라 초기를 배경으로 하지만, 송나라의 멸망과 원나라의 군림, 그리고 명나라의 창건이 언급된다. 그리고 〈천수석〉 연작은 당나라 말엽의 의종 대에서 시작하여 황소의 난과 오대십국을 거쳐 송의 창건 과정을 그린다. 서사 내의 비중과 배치의 차이는 있지만 치세에서 난세로, 그리고 난세에서 치세로 순환하였다는 서술이 존재하기에 이 작품들에서 치난의 순환이 드러난다.

〈소현성록〉은 형식에 따라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소현성록〉을 창작하게 된 계기를 적은 가상의 서문인 ‘소승상 본전 별서’, 그리고 소현성과 그의 아들을 다룬 서사인 ‘수제 소현성록’, 마지막으로 ‘수제 소현성록’이 어떻게 유전이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몽유록인 〈뉴문성조몽유록〉이다. 가상의 서문과 유전 경위가 별도의 작품처럼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모습은 〈소현성록〉의 서사가 역사적 사실처럼 인식하게 하는 사실화 지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¹⁴ 하지만 이러한 구성적 특징으로 인해 〈소현성록〉은 소씨 가문의 서사가 영원히 번창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소씨 가문이 멸망했음을 드러낸다.

14 〈소현성록〉의 등장인물들이 실존 여성들과 함께 여성의 모범으로 언급되는 구절을 지닌 〈과부가〉라는 가사가 있다. 이는 문학의 향유층들의 인식에서 〈소현성록〉의 등장인물들이 완전히 허구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나오기 어려운 구절일 것이다. 〈과부가〉는 담양군 한국가사문학DB[<http://gasa.go.kr/?gasa=18&mode=view&uid=262>(검색일: 2025.8.4)]를 참조하였다.

‘수제 소현성록’만 본다면 소경의 사망을 기점으로 소씨 삼대의 이야기를 마감하며, 이후에도 소씨 가문은 앞으로도 후손을 남기며 영원한 영화를 누릴 것처럼 종결된다.¹⁵ 〈소현성록〉 이후에 등장한 가문소설은 대개 이러한 방식으로 작품을 마치며, 설사 가문이 멸문해도 간략한 후일담을 넣는 정도로 끝난다.

그러나 〈소현성록〉의 후일담이 다른 작품들과 변별되는 것은 ‘수제 소현성록’이 세상에 흘러나오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뉴문성조몽유록〉¹⁶이라는 작품을 통해 ‘수제 소현성록’에서 보였던 소씨 가문의 영원해 보이던 번영도 결국 역사의 흐름에 의해 좌절되었음을 그려 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뉴문성조몽유록〉의 창작은 사실화 지향의 일환만으로 해석하기에는 부족하다. 이에 이 부분에서는 〈뉴문성조몽유록〉이 단순한 서술이 아니라 세밀한 묘사로 몰락한 소씨 가문의 터전이었던 자운산을 그려낸 이유와, 두 등장인물인 유기와 소운성이 함의하는 바를 구명함으로써 〈뉴문성조몽유록〉의 창작 의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뉴문성조몽유록〉은 송나라의 멸망과 원나라의 득세, 그리고 천명을 받은 주원장의 등장과 명나라의 건립을 통해 치세가 돌아온 역사적 전개를 서술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후 주원장의 공신인 유기가 산천을 유람하던 중 소씨 가문의 터전이었던 자운산을 방문하고 겪은 일을 기록한다. 이때 유기가 방문한 자운산은 수려한 산세와 그에 대비되는 퇴락한 공간이 되어 있었으며 이는 수제 소현성록 초반에 서술된 자운산의 모습과 상반된다. 다음 인용문은 〈뉴문성조몽유록〉에서 묘사된 자운산이다.

15 ‘수제 소현성록’의 결말은 치세라 분류할 수 있는 인종 대에 종식된다.

16 이본에 따라 〈소운성 자운산 몽유록〉이라 한다.

남문 밖씩 혼 뢰히 이시되 크기 무궁하고 열두 봉만이 바로 싸여나 운툐의 쎄
 터시니 뉴공이 괴이히 니겨 나아가보니 산천이 절승하고 격물이 소쇄하여 풍경
 이 소과의 웃듬이라. 만이천봉과 기화요초의 산협옥결은 진주를 구을니는 듯 혼
 디라. … 세류 수천되 그로막혀 그 안홀 보기 어렵거늘 버들을 헤티고 드러가보
 니 옥사청석의 큰 소히 이서 쥬회 십여 리오. 슈세(水勢) 늌늌(凜凜)하여 기리를
 아디 못홀디라. 자고(鷓鴣)는 슬피우러 네일을 니르느 듯 청풍(淸風)이 소슬(蕭
 瑟)하고 송독이 창창한디 빅해 무성하여 칙식당을 두로틴듯하니 … 퇴락(頽落)
혼 화계(花階)와 물허딘 분장(粉牆)이 수참(愁慘)하나 녹독 송빅과 괴이혼 곳과
향기로온 풀이 그득하고 디형이 광활하여 각별혼 동툐이라.¹⁷

이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뉴문성조몽유록>에 묘사된 자운산 자연물의
 뛰어난 경관을 묘사한 후 ‘자고’의 슬픈 울음이 들린다는 청각적 표현이 등
 장하는데, 옛사람들은 자고가 ‘행부득야가가(行不得也哥哥)’라고 운다고 여
 겨 고향을 그리는 심정을 비유할 때 사용하였다.¹⁸ 이는 멸망한 소씨 가문에
 대한 비애의 감정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이후의 묘사를 살펴
 보면, 자운산은 퇴락하고 무너져 생명력을 상실한 공간처럼 그려진다. 따라
 서 독자는 자연스럽게 ‘수제 소현성록’에 나타난 자운산의 묘사와, 그로 인
 해 느끼게 되는 정서와는 상반됨을 알게 된다.

‘수제 소현성록’에서는 ‘무릉’과 ‘봉래’와 ‘방장’ 등의 상징적 표현을 통해
 자운산의 영험함을 묘사하였다. 이러한 묘사는 앞으로의 전개, 즉 자운산에
 서 뛰어난 인물이 탄생하는 데 대한 설득력을 확보하는 것임과 동시에 자운
 산에 터를 잡은 소씨 가문의 영광스러운 앞날을 예견한다. 즉, ‘수제 소현성

17 『소현성록』 권15, 104~105쪽.

18 자고는 명대의 문인인 丘濬의 시 <禽言>의 한 구절로 등장하며, 귀로의 힘듦과 이별의 슬
 픔을 형상화한다.

록'과 <유문성자몽유록>의 자운산은 대조적인 면모를 보이며 이는 인간세의 무상함을 드러냄과 동시에, 영원할 것 같았던 소씨 가문도 왕조의 몰락과 함께 사멸했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또한 송나라가 멸망하고 소씨 가문을 상징하는 자운산이 폐허가 되었다는 것은 소씨 가문이 송나라의 멸망까지 충성을 지켰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즉, 자운산의 모습이 처참하고 쓸쓸한 것은 송나라에 대한 충성으로 인한 것으로, 그 모습을 상세하게 묘사함으로써 소씨 가문의 충성을 더욱 강하게 전달한다.

이후 자운산 안에 세워져 있던 '소현성통효문'에서 잠깐 졸던 유기는 꿈속에서 소운성을 만난다. 소운성은 송나라의 멸망과 함께 소씨 가문이 완전히 몰락했다는 것을 밝힌다. 이에 아버지의 사적을 전할 길이 없었으나 전생에 연이 있었던 유기에게 '수제 소현성록'의 전달을 부탁한다. 즉, 앞선 묘사와 이에 연계되는 소운성의 발화를 통해 소씨 가문은 가문의 존립이라는 욕망보다 충성이라는 이념을 지킨 가문임이 확인된다.

다음으로는 '소운성'이 '유기'에게 자신의 가문이 겪었던 영화에 대한 기록이라 할 수 있는 '수제 소현성록'을 준 것에 대한 함의를 읽어 내고자 한다. 먼저 유기는 명나라의 개국공신으로 다시 치세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인물이며 당대인들이 그를 신비한 문사로 여겼다.¹⁹ 따라서 기이한 일을 겪은 후 문헌을 공인하고 이를 세상에 전달하는 몽유자의 역할로 유기를 등장시켰다고 볼 수 있다.

소운성을 등장시킨 이유는 '수제 소현성록'에서 그려지는 소운성의 인물상이 자연적 흐름에 저항하는 면모를 보여 주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소

19 유기는 과양호에서 진우량과 싸우던 주원장에게 급히 다른 배로 옮겨 타야 한다고 독촉하였고, 주원장이 배를 옮기자마자 원래 타고 있던 배가 거대한 쇄에서 쏜 돌에 맞아 파괴되었다. 이 사실은 정사인 『明史』 권128, 「劉基」에 기록되어 있다. 또한 유기는 점술과 명리에 능했던 것으로 전해지며, 이러한 점 때문에 당대인들에게 신비한 문사로 인식되었다.

운성은 소씨 가문과 유씨 가문 간의 연대 악화를 지적하거나²⁰ 소경의 사후 악화되는 형제간의 유대를 회복하려는 노력²¹을 하는데, 이 사건들은 자연적으로 악화되는 덕성을 인위적으로 회복하려는 저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역사의 흐름에 저항하여 끝까지 송에 대한 충성을 지킨 소씨 가문을 상징하는 인물로 소운성이 등장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처럼 〈소현성록〉은 가문의 서사가 종결되고 나서 작품의 가상적 유전과정에서 역사적인 멸망을 언급하며, 쇠락한 자운산을 통해 소씨 가문의 깊은 충성을 그린다. 명의 개국공신을 통해 필연적 멸망에 저항한 소씨 가문의 이야기를 전한다. 그리하여 소씨 가문의 삶은 충성을 지켰고 치세에 이르러 이를 인정하는 인물을 통해 후세에 기록될 만한 이야기로 공인된다. 이에 소씨 가문의 삶은 역사적인 영속성을 얻는 것이다.

다음으로 살펴볼 작품은 〈천수석〉 연작이다. 〈천수석〉 연작은 당나라의 치세가 끝을 맞이하는 시기라 할 수 있는 선종과 의종 대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오대십국이라는 난세를 거쳐, 다시 치세로 돌아온다고 볼 수 있는 송나라 태조 대까지를 시대적 배경으로 한다. 이러한 면모로 인해 〈천수석〉 연작은 매우 이례적인 가문 성취 구조를 가지고 있다.²²

앞에서 여타의 가문소설은 세대를 기준으로 가문의 성취가 점차 상향된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 작품은, 이미 정치적으로 성취를 이룩하고 번영하는 가문이 서장부터 등장한다. 즉, 주인공이 이루어 내야 할 미증유의 성취는 당 왕조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서두 부분과 달리 왕조가

20 『소현성록』 권10, 122~126쪽.

21 『소현성록』 권15, 71~75쪽.

22 작품의 시대적 배경 자체가 왕조교체기라 정의할 수 있기에 이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한 연구들도 존재한다. 김강은, 「〈천수석〉에 구현된 국가의 존망과 가문의 존재 양상」, 『온지논총』 69(2021); 김강은, 「왕조교체기 소재 국문장편소설에 나타난 가문의 역할 변화와 그 의미: 〈화산선계록〉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69(2025), 61~96쪽.

교체되기 전 가문은 정치적으로 몰락하고 급기야 작품의 마지막에는 정치적 영향력을 상실한 가문으로 전락한다는 점에서 대조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성취의 회복을 후편에서 이룩하게 된다는 점에서 세대별로 볼 때 성취의 선형이 상향선을 그리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천수석〉은 당 선종 때부터 오대십국 후진까지를 시대적 배경으로 한다. 즉, 이 시기는 이미 당나라가 개국하고도 300년 이상 지났을 때이다. 그리고 주인공의 가문은 당의 명신인 위징(魏徵, 580~643)의 후예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곧 주인공의 가문이 부흥한 것은 국가와 거의 동일한 시기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²³ 이러한 위씨 가문이 300년 동안 쌓아 올린 부유함은 위씨 집안이 사는 집이 한 고을의 십 리에 벌려 있다는 서술로 증명이 된다.²⁴ 즉, 일반적인 가문소설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가문의 외형이 이미 작품의 서두부터 나온다고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위씨 가문은 이미 ‘교목세가’인 것이다. 그렇기에 교목세가의 촉망받는 후예인 주인공 위보형은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 이미 치세의 종말이 가까워졌지만, 난세가 도래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과거를 통해 관직에 올라 부마가 되고 승상에 이른다. 선행연구에서 위보형은 굉장히 소극적인 인물이며, 굉장히 강한 은둔 지향을 보인다는 점이 지적되지만,²⁵ 암군에 의해 치세의 종말이 다가오는 상황에서도 국가의 재상이 되어 올바른 정치를 하려 노력한다. 또한 이러한 모습은 일반적인 가문소설의 주인공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위보형은 간신들이 꾸민 역모에 휘말려 유배를 가고, 의종의 사망 직후 자객의 손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다. 물론

23 작품의 주인공 위보형은 실존 인물 韋保衡(? ~ 873)의 행적을 수용한 인물로, 위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인물이다. 그럼에도 작품 내에서 위징의 후예로 위보형을 서술한 것은 위보형의 가문이 상당히 오래되었음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추정할 수 있다.

24 『천수석』 권1, 1a.

25 채윤미, 「〈천수석〉에 나타난 영웅의 문제적 형상」, 『국문학연구』 27(2013), 213~214쪽.

위씨 가문 인물들 일부는 조정에 남아 있지만, 위보형이 실각한 순간 위씨 가문은 정치적으로 몰락하기 시작한다.

이후 위보형은 은거하여 신선 수련을 하고 있던 할아버지에게 구호를 받는다. 그리고 화산으로 들어가 수련을 통해 지선에 도달하고 황소의 난으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던 당나라를 구한다는 명분으로 다시 세상으로 나선다. 황소의 난으로 인해 수도는 불에 타고 그나마 남아서 벼슬을 하던 위광미의 부인 양씨의 소생이자 위보형의 이복동생들도 목숨을 잃게 되어 위씨 가문은 위보형을 제외하면 정치적으로 소멸한다.

물론 다시 돌아온 위보형의 활약으로 당나라는 황소의 난을 물리치지만 의종의 뒤에 즉위한 임금인 희종도 국가의 중흥을 이끌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 파악하고 난 후, 다시 주어진 자신의 벼슬과 영화를 전부 포기한다. 그리고 자신의 친자이자, 이극용의 양자가 된 ‘위사원’이 혼사를 치러 완전한 성인이 되는 모습을 본 후 종적을 감춘다. 즉, 위보형은 당에 끝까지 충성을 바치지 않으며 당에 이미 천명이 떠났음을 확인하고 사라진 것이다. 이는 위보형뿐만 아니라 다른 위씨 가문의 구성원도 마찬가지로 이들은 ‘가문 단위의 신선 공동체’에서 살며 속세와 단절된다.²⁶

이후 ‘위사원’이 위보형의 뒤를 잇는 서사의 주인공이 된다. 그러나 ‘위사원’은 이극용의 양자이기 때문에 위씨 가문과는 혈연적 친연성이 있을 뿐, 공식적인 성은 이씨를 따른다. 그는 자신의 혈연적 성(姓)을 자신의 적자(嫡子)인 위복성에게 물려주고 위씨의 제사를 모시도록 함으로, 위복성을 자연스럽게 왕조의 후계자 위치에서 배제한다. 작중에서 위복성의 자질이 ‘위사원’의 다른 서자나 양자에 비해 떨어진다는 묘사가 없기에 이러한 행위는 ‘위사

26 채윤미, 「한글장편소설 속 선계 형상화의 일고찰: 〈천수석〉과 〈명행정의록〉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47(2019), 53쪽.

원'이 무엇을 중시하는지 알 수 있는 계승이라 할 수 있다. '위사원'은 자신이 천명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직 치세가 도래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자신이 죽으면 이 왕조는 유지될 것이라 보지 않았다. 따라서 '위사원'이 중시한 것은 불확실한 영광이 아니라 확실한 생존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정통성이 제일 높은 아들에게 제위와 성씨를 물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위사원'은 권력 투쟁의 소용돌이에서 위복성을 살릴 수 있게 된다.

이후에는 '위사원'의 예측대로 그의 사후 바로 반란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그 결과 '위사원'의 제위를 계승한 서자 이종후는 위사원의 양자 이종가에게 제위를 찬탈당하고 사망하며, 위복성도 영지를 환수당한다. 그리고 군권의 대부분을 장악한 석경당이 이종가의 제위를 찬탈하고 후당이 멸망한다.

권력 투쟁의 속성상 위복성은 목숨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그는 '위사원'의 적자로 가장 유력한 왕위 계승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복성은 권력의 포기를 천명하고 권력을 지닌 자형인 석경당에게 복종함과 동시에 처사적 은일을 지향함을 보여 살아남는다. 결국 위복성에 의해 위씨 가문은 세속적 명맥을 보존하게 된다. 따라서 위복성이 아예 정치권력이나 세속의 삶에 관심이 없는, 신선과 같은 초탈한 인물인지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에 속편인 <화산선계록>에서 위복성이 사는 공간의 특징과, 그의 행동을 통해 그가 추구했던 진정한 삶의 방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위복성이 사는 화산 청운동은 물질적 욕망과 이상적인 삶이 동시에 투영된 공간이다.²⁷ 즉, <천수석>에서 위보형을 위시한 다른 위씨 가문원들이 사는 화산과는 차이를 보인다. 화산 청운동은 지상선계의 목가적인 공간이 아니라, 화려한 궁정과 거대한 장원으로 상징되는 일견 세속적으로 보이는 공간임이

27 이에 대한 논의는 정재윤, 「〈華山仙界錄〉研究」,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2023), 54~59쪽 참조.

작품의 서두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위복성의 지향이 위보형과는 미묘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려 준다. 위보형이 속세와의 단절을 추구했다면, 위복성에게 속세는 때에 따라 단절과 소통을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다.

또한 그는 세속의 정치권력과 단절된 삶을 살지 않는데, 그 근거로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로, 첫째로는 아들들의 혼처를 구하면서 당대의 대신이자 권신이라 할 수 있는 풍도(馮道, 882~954)와 범질(范質, 911~964)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였다는 점, 둘째로는 당대 임금의 후계자인 시영과 그의 친구인 조광윤을 대상으로 인척관계를 맺고자 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는 점이다.

결국 위복성은 난세의 혼란을 피하고자 하지만 혼맥을 통해 세속과의 인연을 유지함으로 치세를 대비하였다. 그리고 천명을 받아 치세를 만들 수 있는 인물인 조광윤이 나타난 것을 알고 출세욕이 있는 셋째 아들 위현이 속세로 나가는 것을 허락한다.

위현의 출세는 위복성에 의해 안배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는 가문소설의 주인공 중 드물게 과거를 통하지 않고 임금에 의해 바로 관직에 임명된다. 임금인 시영이 그의 종매부였고, 시영과 조광윤의 혼인을 주관한 것이 위복성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아직 치세, 즉 왕조가 안정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이다. 과거로 관직에 진출한다는 것은 왕조가 안정되어야 하며,²⁸ 이때는 난세였기에 출사 방법 자체가 인맥에 기대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현은 인맥으로 출사하였고 그 인맥을 아버지가 만들어 준 것이라는 점에서 위씨 가문의 재흥은 위복성부터 준비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본격적으로 위씨 가문이 정치적 재흥은 바로 남성 주인공 위현과 여성 주인공 이옥수의 활약 때문이다. 위현은 후주에서 여러 공훈을 쌓고, 시영

28 이는 송나라 창립 이후 출사하는 위현에 관련된 인물들이 전부 과거를 통해 환로에 진출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의 사망 이후 조광윤을 임금의 자리에 올려 송나라의 개국공신이 된다. 즉, 위현은 당나라의 개국공신이자 태종의 현신인 위정의 위치와 동렬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아내인 이옥수는 위씨 가문과 인척관계를 맺을 만한 가문들이 지니고 있던 문제를 해결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가문의 명망을 높이고 다른 가문이 갚아야 하는 은혜를 만듦으로서 위씨 가문은 독보적인 위치를 점한다. 그리고 결말에 와서는 여타 가문소설처럼 위현의 아들들이 얼마나 많은 자식을 낳았는지 서술된다. 즉, 전작 서두에 보였던 ‘교목세가’의 모습을 후작의 결말에 다시 보임으로써 일종의 수미상관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결말에서 주목할 점은 위씨 가문이 단순히 ‘교목세가’를 다시 성취한 것으로 서사가 종식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모든 영광을 이룬 위현은 화산 청운동으로 물리간다는 선택을 하며 조광윤은 이를 이루어 준다. 이에 위현의 아들 중 이미 조정에서 관직을 얻은 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위현의 은퇴에 동참한다.

즉, 위씨 가문은 권력을 일부 포기하는 대신 정치적 권력에 비례하여 늘어나는 정치적 위협에서 벗어나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이는 작품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민감한 존재라 할 수 있는, 후주 세종 시영의 아들이자 전 왕조의 적자인 시명훈이 위현과 함께 은퇴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은퇴는 위씨 가문도 쇠퇴와 멸문을 겪을 수 있다는 인식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와 함께 가문이 끝없이 부흥한다고 인식했다면 세속에서 떨어져 있는 화산 청운동이 아닌, 권력의 중심인 경사(京師) 근처에 머물렀을 것이다. 이후 작품의 끝에서 권력과의 물리적 거리를 둔다는 것은 결국 언젠가 도래할 또 다른 위기에 대한 대비적인 처세라 할 수 있다.

2. 난세의 예정된 도래

이 절에서는 〈유효공선행록〉 연작과 〈보은기우록〉 연작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유효공선행록〉 연작의 경우 성화제 대부터 가정제 대까지를 주된 시대적 배경으로 하며 융경제와 만력제가 언급된다. 그리고 〈보은기우록〉 연작의 경우 가정제 대를 주된 시대적 배경으로 한다. 따라서 두 작품의 서사적 종결의 시기는 명나라의 멸망하는 때와 꽤 떨어져 있다. 즉, 굳이 명나라의 멸망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작품들은 명나라가 쇠퇴하고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이며, 명이 청에 의해 멸망하는 ‘역사적’ 전개를 서술한다.²⁹ 따라서 치세에서 난세로 바뀐다는 순환론적 역사관이 구현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살펴볼 작품은 〈유효공선행록〉 연작이다. 이 작품은 성화제의 경우 총희 만귀비의 문제, 그리고 가정제의 경우 환관의 대두 등이 지속적으로 등장하면서 통치자의 결점이 드러난다.³⁰ 사실 통치자의 결점이 나오지 않는 가문소설은 드물지 않다. 그러나 〈유효공선행록〉 연작처럼 국가의 덕이 지속적으로 쇠해 가고, 이를 통치자의 변경으로 일시적으로는 바꿀 수 있지만, 결국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작품은 흔치 않다.

전작인 〈유효공선행록〉에서는 성화제의 만귀비 관련 사건으로 통치자의

29 명나라는 이자성의 난에 의해 멸망하였고 권력의 공백을 틈타 청이 중원을 차지한 것이 실제로 일어난 事實이지만, 당대에는 청나라에 의해 명나라가 멸망했다는 것을 史實으로 인식하였다.

30 〈유효공선행록〉의 시대가 난세라고 인식하는 연구자도 있지만, 작품의 주인공 유연이 문체적인 세상에 처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더라도 이 논문의 기준으로 ‘난세’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효공선행록〉의 시대가 치세가 끝나고 난세로 향해 가는 문체적인 시기라는 점에서는 정확한 지적이라 생각된다. 이에 대한 논의는 황지현, 「유연의 선택과 단명서사로 본 〈유효공선행록〉의 작가의식」, 『한국고전연구』 52(2021), 238~240쪽을 참조하였다.

문제를 드러냄으로써 왕조의 쇠퇴를 그린다. 이 작품에서는 만귀비가 성화제의 절대적인 총애를 받고 있었으며, 성화제는 만귀비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비판도 용납하지 않고, 어떠한 행동도 용서한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³¹ 성화제의 부덕을 보여 준다.

물론 성화제가 단순히 암군으로만 그려진 것은 아니다. 가문 내의 사건에서 지속적으로 혼암한 모습을 보여 주는 유정경을 총애하기는 하지만,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거나 유정경이 유연에 대한 책망을 그치게 하는 판단력을 보여 준다. 그러나 성화제는 만귀비에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는 총언을 막아 덕을 약화하며, 이로 인해 주인공 유연을 빈사 상태로 만든다. 이는 주인공이 이른 죽음을 맞게 된 원인 중 하나가 된다. 주인공 유연이 동생 유홍의 사주를 받은 아버지 유정경의 명령으로 황후의 폐위를 반대하는 상소를 올리자 성화제는 혹독한 장형을 가하는데, 이 장형이 유연이 당한 신체적 훼손 중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화제는 만귀비를 총애하여 결국 황후를 폐하고 태자를 소홀히 대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상소를 올리지 말라는 명을 내린다. 그리고 유홍은 이를 이용해 유연을 제거하고자 한다. 그는 유정경에게 청해 유연이 만귀비에 대한 상소를 올리게 한다. 그렇게 되면 유연은 임금의 금령을 위반함과 동시에 만귀비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임금은 유홍의 의도대로 유연을 처벌한다.³² 이후 유연은 장형을 당하고 유배를 가게 된다. 이러한 처지는 임금이 죽고 나서야 변하는데, 이는

31 이에 대한 논의는 김문희, 「고전소설의 만귀비의 소설적 재현방식과 소설화 동인」, 『한국 고전소설의 중국 역사소설화방식과 동인』(파주: 보고사, 2022), 272~276쪽을 참고하였다. 다만 김문희의 논문에서는 태자의 서사와 주인공의 서사가 상동성을 지닌다는 점에 초점을 두었다.

32 『유효공선행록』 권3, 65~74쪽.

임금의 사망과 같은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고서는 덕정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성화제는 왕조의 동량이 될 유연에게 ‘이른 죽음’을 맞게 하는 원인을 제공함으로 왕조의 덕이 통치자에 의해 점차 쇠퇴하였음을 그린 것이다.

후속작 <유씨삼대록>의 후반부에서는 가정제의 난정과 북로남왜의 외침에 흔들리는 국가를 그린다. 명나라의 운수가 세월이 지나면서 서서히 사그라든다는 서술을 통해 명나라가 쇠퇴하고 있음을 명시하며 가정제 대부터 본격화된 명나라의 외부적 위협이라 할 수 있는 북로남왜 중 북방 이민족의 준동을 모티프로 한 북방의 위협을 서술한다. 그리고 전대 임금 효종과 무종과의 비교를 통해 점차 악화되는 통치자의 역량을 드러낸다.³³ 그리고 작품의 후반에 이르러서 유씨 가문은 난세의 도래를 예측하고 체념하는 듯한 면모를 보인다.

가정황제 봉헌시고 퇴직 즉위하시니 이 곳 농경황제라. 비(妃) 뉴시를 칙봉하여 황후를 삼으시고 태손으로 태주를 봉헌시고 뉴각노를 추증하사 황당(皇丈)을 삼으시고 순부인을 증하여 태군부인을 봉헌하시니 … 국개 요란하여 각처의 도적이 벌 니러나듯하고 안호로 환슈(宦豎)의 작난이 성헌디라. 진휘 연후를 더하여 곁오디

“국식 이러트 하니 … 스실의 업디여 난세(亂世)의 문호(門戶)를 보전하고 형데 휴슈(携手)하여 경외예(京外)에 동과형데 뽕덕흔 일 니별이 없게하미 상칙이라…”

… 농경황제 봉헌시고 만년황제 즉위하사 진연 이후를 좌우승상을 하이사 세 번을 청하시디 이인이 칭병브도하고 종시 나디 아니하며³⁴

33 『유씨삼대록』 권16, 1~3쪽.

34 『유씨삼대록』 권20, 53~55쪽.

이 인용문은 작품의 후반부에서 서술자가 왕조에 대한 상황을 언급하는 부분이다. 둘째 인용문의 경우 가정제가 죽고 나서 융경제가 즉위할 때이다. 가문소설에서 가문의 영화는 임금의 장인, 즉 국구(國舅)가 되는 것으로³⁵ 정점에 오르게 된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이 부분은 유씨 가문이 가문 영화의 완성을 이루는 장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유씨 가문의 여성인 태자비가 황후가 되고 유씨 가문의 여성이 낳은 태손이 태자가 되며 나중에는 임금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반해 국가의 난정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가 되자 유씨 가문의 수장인 진후 유관과 연후 유현은 이 시대를 ‘난세’라 규정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유씨 가문은 왕조에 대한 충심을 끝까지 지켜 ‘只츰니 흥망이 나라와 고티’ 되어 멸망을 맞이하게 된다.

정리하자면 〈유효공선행록〉 연작은 작품 내에서는 지속적으로 통치자들에게 의한 덕의 상실을 보여 주는 방식으로 왕조의 덕이 지속적으로 쇠퇴하고 있음을 서술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임계점에 다다랐다고 판단한 유씨 가문의 인물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덕치를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현재를 난세로 규정한 후 방관적 은거를 택한다. 그리고 은거를 택하였음에도 영화를 누렸던 왕조와 장렬히 운명을 같이함으로써 충성을 지킨다.

다음으로는 〈보은기우록〉 연작을 살펴보고자 한다. 〈보은기우록〉은 명나라 가정제 시기를 주된 시대적 배경으로 하며,³⁶ 몰락한 사족 위씨 가문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중심으로 한다.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아버지 위

35 임치균은 가문소설 영화의 완성을 가문의 여성이 황실의 여주인, 즉 황후가 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고 보았고 연구자도 이러한 시각에 대체적으로 동의한다. 임치균, 『조선조 대장편소설 연구』(서울: 태학사, 1996), 101쪽.

36 이 점은 후속작 〈명행정의록〉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해서는 서정민, 「〈보은기우록〉과 〈명행정의록〉의 연작 양상」, 『관악어문연구』 28(2003), 278쪽을 참고하였다.

지덕과 아들 위연청 간의 가치적 충돌을 서사의 주요한 갈등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위지덕은 사족의 삶을 포기하고 장사를 선택하여 부귀를 획득하였다. 그러나 위지덕이 치부를 하는 방법은 사실 단순한 상행위라기보다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도덕적으로 지탄받는 행위라 할 수 있는 사채와 그에 연관된 빚 독촉, 그리고 조선에서는 특히 천한 행위로 인식했던 푸줏간 운영이었다.

주목할 점은 위지덕은 이러한 비도덕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가문이 성취하지 못했던 ‘성공’과 ‘부유’를 얻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작중에서는 위지덕이 본래 이치대로라면 재앙을 받아야 하지만, 도리어 지속적으로 운이 따라 붙는다고 서술된다. 이는 이 시대가 치세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시대임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러한 세상에 대해 작품 내의 세계에서 초월적 위치에 존재하는 구현웅과, 작품 외의 세계에서 초월적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서술자는 왕조의 운수가 다하고 있다는 시대임을 공통적으로 명시한다.³⁷ 즉, 왕조의 운수가 다하고 있으므로 비도덕적인 삶을 사는 위지덕이 성공을 이룬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작품의 전반부는 이러한 전도된 세상에서 성공을 거둔 아버지와, 아버지가 살았던 삶을 거부하고 조상의 삶으로 회귀하려 하는 아들과의 갈등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마왕으로 상징되는 아버지와 문창성의 화신인 아들의 갈등은 아버지의 임사체험과 아들의 성취를 통해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죄를 하고 아들이 집안의 주도권을 잡는 모습으로 마무리된다. 즉, 아버지의 패배와 아들의 승리는 아들이 상징하고 있는 것인 전통적 질서의 회귀를 의도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³⁸

37 구현웅의 발화는 『보은기우록』 권1, 22b쪽, 서술자의 서술은 『보은기우록』, 권2, 6a~6b쪽.

38 이지하는 <보은기우록>의 창작의도 자체는 전근대적 가치체계의 재천명이라 정의하면서도, 그것이 의도한 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한다. 이지하, 「<보은기우록>의 구성적 특징과 작가의도」, 『국제어문』 94(2022).

그러나 아버지의 패배라 할 수 있는 ‘사죄’가 언제 일어났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죄의 시기에 따라 위지덕의 심경 변화의 요인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지덕의 사죄는 위연청이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을 인식한 이후이다. 이러한 점에서 그의 심경 변화는 곧 가치관의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지덕이 위연청을 확대한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위연청이 자신과 조상들이 해 봤지만 실패했던 공부를 했기 때문이다. 위지덕은 연이는 조상들의 실패로 인해 사회적 성공에 가장 높은 가치를 두었고, 그 방법으로 조상들이 가지 않은 길인 비도덕적 축재(蓄財)에 성공하였다. 따라서 위지덕의 입장에서 위연청이 축재를 부정적으로 보고 공부를 긍정하는 것은 본인의 가치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그러나 위연청은 위지덕이 성공한 방법인 축재를 하지 않고, 위지덕이 보기에는 실패가 예정되는 길을 갔다. 하지만 위연청은 부유함은 물론이고, 그가 포기해야만 했던 명예까지 얻었다. 즉, 위연청은 사회적 성공이라는 가치를 기준으로 할 때 위지덕보다 큰 성공을 얻은 것이다.

따라서 위지덕은 위연청의 성공 방식, 즉 마땅히 선비의 가문으로 해야 하는 학문의 길에 대하여, 그것이 옳기 때문에 인정을 했다기보다는 위연청의 결과적인 성취인 ‘사회적 성공’을 거두었기에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위지덕의 가치관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는 위지덕이 자사의 방문을 맞이할 때의 서술을 보면 알 수 있다.

일일의 문득 문정이 물 쓸듯 인성이 환팔하니 … 노직 업드려려져 드러와 고
흥덕

“우리 쇼상공이 … 문무장원이 되시니 … 주스 노애 친님 하례하시고 위의 임
의 도문흥엿느이다.”

원의 하금족(何今卽)하고 놀나오니 늦치 께려하여 깃븜도 모르니 스스로 독장(毒杖)의 죽인 아들이 사라 급데(及第)흔 거슨 오히려 여스(餘事)오. 누세 과갑이 쓴허디고 스스로 지쥬로 소님하매 … 엇지 즈스(刺史) 친님(親臨) 하례(賀禮)로 생각흔 배리오.³⁹

이 인용문은 위지덕이 독약을 먹은 후 죽기 직전까지 가지만 백승설에 의해 살아나 자신의 악행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을 무렵으로, 위연청이 장원이 되어 돌아오기 전 자사가 위지덕의 집으로 찾아왔을 때를 그린 부분이다. 위지덕은 아들이 살아 왔다는 기쁨보다, 아들이 거둔 성공과 그로 인한 영광에 관심을 둔다. 위지덕은 임사체험을 통해 자신의 행적을 반성하고 있지만, 그 행적의 동기가 된 성공 중심의 가치관을 바꾸지는 않은 것이다. 위지덕이 상징하는 바가 가치관이 전도된 세계임을 감안하면 이 세계가 본질적으로 뒤바뀔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보은기우록〉 연작은 이미 이 시기 자체를 왕조의 운수가 다해 가고 있는 상황이며⁴⁰ 이는 위지덕과 위연청의 관계를 통해 이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난세의 이행을 보여 주는 것이다.

후속작인 〈명행정의록〉에서는 초월자인 천존의 입을 빌려 왕조의 멸망과 이민족 왕조의 도래가 예언된다. 초월자의 언술이라는 점에서 이 예언은 확정된 미래라 할 수 있을 것이다.⁴¹ 그는 명나라가 원나라를 물리친 것이 오래 되었으니 다른 이민족이 명나라를 물리칠 것이라 하며, 여진족을 상징하는 지명을 통해 청이 명을 멸망시킬 것이라 알려 준다. 그리고 시를 지은 후

39 『보은기우록』 권10, 28b~29a.

40 이는 〈명행정의록〉도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보인다. 이는 서정민, 「〈명행정의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6), 38쪽, 주석 62를 참고하였다.

41 『명행정의록』 권68, 13a~23a.

송정 17년에 보라 명하였다. 시의 내용과 상관없이 작중의 시대적 배경이 가정제 시기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송정’이라는 연호가 있을 수 없었던 상황이며, 송정 17년은 명나라가 멸망한 연도이다.⁴² 즉, 이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에 왕조는 멸망할 것이며, 역사적 전개를 인지한 독자는 서사가 종결된 후 위씨 가문이 명나라의 교목세가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명이 멸망하고 청이 들어선 후 속세를 떠나 도피할 것임을 깨닫는다.

이처럼 〈보은기우록〉 연작에서 이미 왕조는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되돌릴 수도 없는 상태임을 드러낸다. 그리고 역사적 전개대로 명은 청에 의해 멸망한다는 것을 명시한다. 이에 대해 위씨 가문의 일원들은 난세가 얼마 후 도래하며 이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치사한다. 이후 결말부에서 안정적이며 목가적인 삶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행복하게 보이지만, 도래할 난세를 대비하기 위해 가문의 세속적 영광과 명예를 버려야 함이 예고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가문소설의 가치관에 비춰 볼 때는 ‘우울한’ 결말이라 해석할 수 있다.

III. 가문소설의 순환론적 역사관 구현의 의미

앞 장에서는 역사적 담론이라 할 수 있는 순환론적 역사관이 구현된 가문소설들이 있음을 밝히고, 그 양상을 치세와 난세의 순환과 치세에서 난세로의 이행으로 분류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에 순환론적 역사관의 구현 자체가 드러내는 면모와 구현에 대응하는

42 또한 천안천존은 명의 운수가 구체적으로 70여 년이 남았다고 언급한다. 작중 시대적 배경이 가정제의 말년으로 설정되었는데, 가정제는 서기 1567년에 사망하였다. 1644년에 명의 멸망이 일어나기 때문에 명의 운수가 70여 년 남았다는 서술은 이를 염두에 둔 것이다.

가문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 면모를 기반으로 순환론적 역사관의 구현이 가문소설에서 가지는 의미를 총체적으로 구명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순환론적 역사관의 구현은 작품의 최종적 정서가 어떠한지 드러낸다. Ⅱ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는 양상의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곧 최종적 정서의 차이로 이어진다. Ⅱ장 1절의 작품들에서는 치세가 다시 돌아왔다는 희망으로 인해 마지막 정서가 긍정적으로 환기된다. 그러나 Ⅱ장 2절에서 난세의 도래를 막을 수 없다는 무력함이 더욱 강조됨으로써 마지막 정서는 부정적으로 환기된다. 이처럼 순환론적 역사관의 구현은 작품의 결말에서 독자에게 남기는 감정적 여운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처럼 구현 양상이 차이를 보이는 원인은 작품의 서사에서 드러나는 감정을 통해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⁴³ 1절의 작품들에 비해 2절의 작품들은 부정적인 서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는데, 단적으로 1절에서 논한 작품의 주인공인 소경, 소운성과 위보형, 위현, 2절에서 논한 작품의 주인공인 유연과 진양공주,⁴⁴ 위연청을 비교한다면, 전자의 경우 천수를 모두 누리거나 신선이 되지만, 후자의 경우 장수를 누리지 못하고 사망하거나 죽음을 경험하며 건강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다. 작품에서 주인공이 지니는 비중을 감안할 때 이러한 예시를 통해 작품의 분위기에 있어서 1절에서 다룬 작품에 비

43 대다수의 고전소설은 작가를 알 수 없기에 작품 외적인 접근으로 그 원인을 추정하기는 어렵다.

44 〈유씨삼대록〉에서 진양공주의 위치는 남성 주인공의 아내라는 위치를 넘어 서사 내에서 남성주인공 이상의 비중을 차지함으로 남성 주인공 대신 포함하였다. 이러한 비중은 진양공주의 형상에 대한 재론이 나왔음에도 부정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박일용, 「〈유씨삼대록〉의 작가의식 연구」, 『한국고전문학』 12(1997), 187~220쪽; 한길연, 「〈유씨삼대록〉의 ‘진양공주’의 ‘이상화’ 양상 연구: 〈사씨남정기〉의 ‘사씨’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7(2018), 169~202쪽; 김태영, 「〈유씨삼대록〉에 형상화된 ‘진양공주’의 서사적 기능과 의의」, 『고소설 연구』 51(2021), 323~360쪽; 최어진, 「〈유씨삼대록〉 진양공주 인물형상 재론」, 『고전문학연구』 67(2025), 269~298쪽의 논의를 참조하였다.

해 2절에서 다룬 작품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이다.⁴⁵ 따라서 작품의 분위기에 합당한 감정적 여운을 이루어 낸 것이다.

둘째로 순환론적 역사관의 구현은 왕조와 가문 간의 관계가 본질적으로는 가변적 관계임을 드러낸다. 이는 충효 이데올로기의 전제에 의문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대척점에 있는 작품들이라 할 수 있는 가문의 영원한 번영과 유지로 작품이 종식되는, 즉 치세만 보이는 작품들과의 대조를 통해 특징을 짚어 보고자 한다.

치세에는 왕조와 가문은 호혜적 관계를 맺으며, 왕조에 대한 충성이 곧 가문의 번영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충효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생활양식을 보이면 의도하지 않아도 명분과 이익을 모두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난세가 도래하면 왕조의 몰락과 함께 가문도 위기에 처하고, 이에 따라 왕조에 대한 충성은 더 이상 가문의 번영은커녕 생존조차 보장하지 못한다. 즉, 난세는 왕조와 가문의 호혜적인 관계가 무너지는 시기라는 것이다. 또한 이 논문에서 다룬 작품들에 등장하는 가문들 모두 영광의 정점을 누렸음이 서사에서 등장하지만, 왕조의 쇠퇴와 멸망을 막지 못한다.

이를 서사에서 보여 주는 것 자체가 왕조와 가문의 관계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를 보인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순환론적 역사관의 구현은 왕조와 가문의 관계가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냄으로 왕조와 가문의 관계에 대한 고찰을 유도하며, 충효 이데올로기의 전제라 할 수 있는 왕조와 가문은 동일하다는 명제에 의문을 제기한다.

45 이에 대한 논의로는 한길연, 「〈유씨삼대록〉의 죽음의 형상화 방식과 의미」, 『한국문화』 39(2007), 1~30; 신철우, 「〈유씨삼대록〉에 나타난 멜랑콜리의 형상화와 의미」, 『동아시아고대학』 62(2021), 9~33쪽.; 서정민, 「〈명행정의를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6)을 참조하였다.

충효 이데올로기는 가족 사이의 윤리가 군신 간의 윤리와 연속된다고 설명한다.⁴⁶ 그러나 혈연관계는 한 번 태어난 이상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그야말로 불변의 천륜(天倫)이지만, 왕조의 경우 가변적이라는 점에서 둘의 가치를 같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순환론적 역사관의 구현을 통해 왕조와 부모는 다르며, 왕조의 가변성이 드러나게 된다. 이는 부모에게 하는 효는 임금에 대한 충과 동일 선상에 존재한다고 역설하는 충효 이데올로기와는 배치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상황은 작가가 독자에게 던지는 질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질문은 왕조에 대한 충성이 가문의 멸망을 야기하더라도 충성을 바쳐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이라 할 수 있다.⁴⁷

다음으로 순환론적 역사관의 구현에 대한 가문의 대응을 통해 무엇이 드러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로 순환론적 역사관에 대한 작가의 시각이다. 순환론적 역사관은 치세와 난세가 순환한다는 역사담론이기에 낙관적인 면과 비관적인 면이 공존한다. 따라서 난세에 치세를 대비하거나 인내한다면 이는 치세가 다시 올 것이라는 낙관적 관점에 바탕을 둔 것이라 할 수 있고, 난세가 오는 것을 필연적이라 보며 극복하기를 포기하거나 은둔하는 것은 비관적 관점이라 할 수 있다.

II 장 1절에서 다룬 작품에서는 가문이 난세에도 불구하고 치세를 맞이할 것을 예비하여 언젠가 누군가 열람할 기록을 보관하거나, 가문의 세속적 명맥을 어떻게든 이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 준다. 그리고 천명을 받은 이가 다시 치세를 구현한 후, 새로운 왕조의 개국공신에게 작품에 등장한 가문의 기록

46 본래 충과 효에서 효가 보다 상위의 가치였다. 그러나 전국시대부터 위상이 역전되었고, 유교가 한에 의해 통치 이데올로기로 확립되었을 때는 이러한 상황이 고착화되었으며, 충효의 연계는 유교의 통치술이 되었다. 그리고 삼국시대부터 유교를 수입한 한국의 경우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장현근, 「중국 고대의 충군 사상과 충효 관념의 정치화」, 『정치사상연구』 21-2(2015), 75~97쪽을 참고하였다.

47 이에 대한 가문의 대응이 작품에서 지향하는 가치관과 연결된다.

은 ‘전범’으로 인증되어 영속성을 얻거나, 연작의 서두에 보였던 영광이 연작의 종결부에서 다시 구현된다는 점에서 순환론적 역사관을 낙관적으로 보는 작가의 시각이 포착되는 것이다.

II 장 2절에서 다룬 작품들은 통치자로 인한 덕정의 악화와 가치관이 전도된 세계를 보이고, 이러한 전도가 쉽게 되돌릴 수 없음이 드러난다. 그리고 작품의 종결부에서 국가와 가문의 멸망, 국가의 멸망으로 인한 가문의 예비된 은둔을 그린다는 점에서 순환론적 역사관을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포착되는 것이다.

이처럼 가문의 대응 차이가 작가의 역사관에 대한 해석에 따른 차이로 이어진다는 것은 가문소설의 작가들이 역사담론을 고려하며 작품을 창작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로 소설에서 부각되는 가치이다. 이 부분에서는 부각되는 가치의 종류에 따라 작품을 다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충성’이라는 이념과 당위가 부각되는 〈소현성록〉과 〈유효공선행록〉 연작과 ‘생존’이라는 욕망과 현실이 부각되는 〈천수석〉 연작, 〈보은기우록〉 연작으로 나눌 수 있다.⁴⁸

전자에서 이념과 당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서사에서 강조한 논리에⁴⁹ 일관적이며,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자의 작품들은 앞선 논의에서 드러나게 된 가상적 질문에 대해 당연히 충성을

48 충성과 생존을 이념과 욕망으로 이분화하여 해석한 것은 『孟子』의 ‘捨生取義’에서 영감을 얻었다. 맹자는 인간 욕망에서 가장 절실한 것을 생존욕이라 보았고, 이를 의로움이라는 이념과 대비하였는데, 이를 확장하면, 특정한 상황을 전제로 하지만 당대인들은 이념과 욕망, 충성과 생존을 대비하여 사고했으리라 짐작되기 때문이다.

49 임치균은 〈소현성록〉의 분석을 통해 초기 가문소설은 여성을 훈육하기 위한 이념적 수신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분석하였고, 논자는 가문소설이 표면상 내세우는 명목은 여기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여긴다. 임치균, 「대장편소설의 수신서적 성격 연구」, 『한국문화연구』 13(2007), 83~111쪽.

지켜야 한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치세와 난세를 가리지 않고 충성을 지킨다는 점에서 충성은 불변해야 한다는 인식이 드러나 절대화된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치세에는 충성을 보이지만, 충성과 생존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인 난세가 다가오자 ‘생존’을 ‘선택’하는 면모를 보인다. 즉, 왕조와 가문의 관계가 현실적으로 별개임이 드러나는 단계에 이르러서는 충성에서 이탈하여 생존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욕망과 이념의 관계에 있어 ‘선택’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읽어 낼 수 있다.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념과 욕망이 비슷한 가치를 지닌다는 사고가 전제되는 것이다. 따라서 후자의 작품들은 앞선 논의에서 드러나게 된 가상적 질문에 대해 생존을 따라야 한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작품에 드러나는 가치관을 기준으로 한 분류에 있어서 주목할 지점은 대략적 창작 시기를 기준으로 삼아도 같은 작품 분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가문소설 창작층에 대한 시대적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가문소설이 형성되던 시기인 17세기 중후반에 창작되었다고 보이는 작품이고, 후자의 경우 19세기 전반에 창작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⁵⁰

가문소설의 창작은 서사에 대한 여성들의 욕망을 일정 정도 해결해 주는 대신 남성들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암묵적 타협의 결과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순환론적 역사관의 구현으로 인한 왕조의 멸망에도 ‘불구하고’ 독자가 감정이 이입된 가문이 충성을 지키는 모습은 지배 이데올

50 <소헌성록>은 17세기 문헌에, <유씨삼대록>은 18세기 초의 문헌에 관련 기록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창작 시기를 17세기까지 소급할 수 있기에 가문소설 초기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명행정의록>과 <화산선계록>은 홍희복의 『제일기언』 서문에 처음으로 기록되었기에 19세기 초반에 창작되었다고 추정된다. 이에 대한 논의는 박영희, 「<소헌성록> 연작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4), 34~50쪽; 한길연, 「대하소설의 자료사적 궤적과 공공화방안: <유씨삼대록>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42(2016), 5~45쪽을 참고하였다.

로기의 강화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작품의 창작 시기인 17세기 중후반은 ‘증화’를 이민족 왕조가 차지하고 있는 상태이기에 〈소현성록〉의 경우 언젠가 찾아올 치세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함을 역설하는 것이고, 〈유효공선행록〉 연작의 경우 충성을 지키며 장렬히 맞이한 최후를 통해 충성의 이상적 모습을 그려 낸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임병양란의 여파로 이를 수습하기 위한 예학의 발달과 수신서의 보급⁵¹으로 대표되는 ‘강박증’적인 도덕과 이념 교육의 강화와 맞물려 있다.⁵²

그러나 후자의 경우 가문소설이라는 유형이 나온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때이며, 이미 청과 조선의 관계가 안정기에 접어든 시기이다. 이러한 점에서 순환론적 역사관이 다시 구현되는 것은 1절의 작품들과는 다른 이유일 것이다. 이에 대한 이유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19세기 초반 조선의 급박한 정치적 격변이다.

이때는 조선 왕조가 정조의 사망 직후 급격한 혼란을 겪은 시기이며, 평안도에서는 조선 왕조의 ‘체제’에 반기를 드는 반란인 ‘홍경래난’이 일어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 정부는 민간의 유교적 기강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다.⁵³ 이 시기 정치·사회의 급격한 불안정성은 18세기와는 대조적이었다는

51 이에 대하여 마크 피터슨(저), 김혜정(역), 『유교사회의 창출』(서울: 일조각, 2000); 마르티나 도이힐러(저), 이훈상(역), 『한국사회의 유교적 변환』(서울: 아카넷, 2003)을 참고하였다.

52 17세기 조선은 사회 전반에 있어서 ‘강박증’을 앓는 것처럼 도덕과 윤리를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박길희, 「17세기 조선 사회의 강박증과 공백의 출현」, 『한국민족문화』 89(2024), 63~89쪽의 표현을 빌렸다.

53 19세기 조선 정부가 민간의 유교적 기강을 수습하지 못하였다는 증거는 개인의 도교적 권선서의 발간과 혁세종교의 출현, 궤서와 민란으로 상징되는 저항들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조현철·임병학, 「조선 후기 권선서와 민화문자도의 윤리의식」, 『인문과학』 69(2018), 249~278쪽, 2018; 한승훈, 「조선후기 변란의 종교사 연구: 추국 자료로 본 반란과 혁세 종교」,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9), 1~371쪽; 이이화, 『민란의 시대』(서울:

점에서 ‘문제적’이며, 따라서 이 작품들에 있어서 순환론적 역사관의 구현은 현실을 환유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19세기 초에 창작되었다고 추정되는 작품들은 유교적 기강의 강화라 할 수 있는 충성의 강조보다는 혼란기에 따른 생존에 더 무게를 두고 있으며, 이는 지배 이데올로기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사고의 투영이라고 할 수 있다.⁵⁴ 또한 이 두 작품군의 추정된 창작 시기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가문소설의 지향이 이념의 선명한 구현에서 욕망의 은밀한 발현으로 바뀌는 과정이 역사담론의 활용을 통해서도 드러나는 것이다.⁵⁵

논의를 종합하면, 순환론적 역사관의 구현이 보이는 그 자체의 역할은 작품의 감정적 여운을 결정하고 충효 이데올로기의 전제에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순환론적 역사관의 구현에 대응하는 가문의 양상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역사관에 대한 작가의 관점과 가치관의 부각으로, 특히 가치관의 부각은 가문소설의 지향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이처럼 작품의 정서와 창작자의 순환론적 역사관에 대한 인식에 따라 순환론적 역사관의 양상을 구현하는 가문소설이 존재하였으며, 이러한 가문소설은 순환론적 역사관의 구현을 통해 작품의 가치관과 문제의식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가문소설의 창작자 중 일부는 역사적 담론을 높은 수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할 수 있다.

한겨레출판사, 2017) 등을 참고하였다.

54 이러한 점에서 17세기 작품들에 보였던 순환론적 역사관이 ‘다시’ 나오게 된 것도 작가의 의도라 할 수 있다. 같은 질문에 다른 답변이 나오게 되는 것은 시대에 따라 가치관도 변화했음을 대조적으로 드러내기 위함이다.

55 한길연은 “낙선재본 장편소설들이 여성에 대한 훈육과 여성 욕망 간의 길항관계 속에 놓여 있다.”라고 하였는데, 훈육이라는 것은 당대의 지배이념을 가르치는 것이라 본다면 결국 가문소설의 역사 담론에서도 이념과 욕망의 길항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길연, 「낙선재본 장편소설의 여성 길들이기와 여성의식으로의 專有 양상: 장편소설의 吉服 모티프를 중심으로」, 『장서각』 49(2023), 64쪽을 참조하였다.

IV. 결론

조선 후기 가문소설 중 왕조의 치란홍망을 전제로 하는 순환론적 역사관이라는 역사담론이 구현되는 작품들이 있으며 이러한 양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치세와 난세, 그리고 다시 치세로 이어지는 순환이 보이는 양상이다. 그 대표작으로는 〈소현성록〉과 〈천수석〉 연작이 있다. 이 작품들에서는 치세에서 영광을 누리다가 난세에 몰락하지만, 다시 치세가 도래하면 가문이 부흥하거나 명예를 회복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소현성록〉의 소씨 가문은 송나라의 멸망과 함께 멸문함으로 충성을 지키며 명나라의 개국공신에 의해 그 충성이 다시 기억되고 인정받는다. 이는 가문이 왕조와 운명을 함께하면서도, 충성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겨 영속성을 획득한다.

〈천수석〉 연작에서는 당나라의 개국공신이었던 위씨 가문이 혼란을 겪으며 정치적으로 몰락하지만, 다시 송나라의 개국공신이 되어 가문을 재흥시킨다. 이 과정에서 위씨 가문의 인물들은 왕조의 멸망을 예견하고, 권력을 벗어나 생존을 선택한다. 결국 위씨 가문은 두 정통왕조에서 모두 개국공신이 되는 영광을 누린다.

둘째, 현재는 치세이지만 곧 난세가 도래할 것이 드러나는 양상이다. 대표적으로 〈유효공선행록〉 연작과 〈보은기우록〉 연작이 있다. 〈유효공선행록〉 연작에서 통치자의 부덕으로 인해 국가가 점차 쇠퇴하고 난세로 접어든다. 이에 유씨 가문은 출사를 포기하여 왕조의 쇠퇴에 대해 방관적 태도를 보이며, 왕조와 운명을 같이 하여 장렬한 최후로 충성을 증명한다.

〈보은기우록〉 연작에서는 이미 왕조의 운수가 쇠해 가고 있음을 암시하며, 가문과 개인의 역량으로 이를 되돌릴 수 없다는 비관적 인식이 드러난다. 그리고 왕조의 멸망이 확정된 상황에서 충신이 되어 왕조를 살리기 위한 노력보다는 은둔 후 난세가 도래했을 때 신선이 마련해 준 세계로 들어가 생존

을 택할 것을 암시한다.

이후 II장의 논의를 기반으로 순환론적 역사관의 구현 자체로 드러나는 것과, 순환론적 역사관의 구현에 대응하는 가문의 양상에서 드러나는 것을 살펴봄으로 가문소설에서 순환론적 역사관 구현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순환론적 역사관의 구현은 먼저 작품의 최종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며 왕조와 가문의 관계가 시대와 상황에 따라 가변적임을 드러내어 충효 이데올로기가 전제로 하는 왕조와 가문의 동일성에 의문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순환론적 역사관 구현에 대한 가문의 대응 양상을 통해 순환론적 역사관에 대한 시각을 파악할 수 있으며, 소설이 지향하는 가치관을 드러낸다고 구명하였다. 또한 가문의 대응 양상을 기준으로 본다면 작품의 창작 시기와 맞물려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창작 시기에 따른 여러 가지의 맥락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가문소설 중 일부는 역사적 담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보이며 이에 대한 구현과 반응을 복합적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⁶

56 가문소설뿐만 아니라 여타 고전소설 유형에도 순환론적 역사관에 기반한 작품들이 존재하지만, 분량 제한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였다. 고전소설 전체에 대한 순환론적 역사관의 조망은 후속 논고를 기약한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孟子』.

『明史』.

국학진흥연구사업추진위원회(편), 『명칭정의록』,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임치균·강문종·김수연·홍현성(교주), 『보은고우록』,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9.

임치균·강문종·김정원·이지영(교주), 『턴슈석』,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1.

조혜란·정선희(교주), 『소현성록』, 서울: 소명출판, 2010.

최길용(교주), 『유효공선행록』, 고양: 학고방, 2018.

최길용(교주), 『화산선계록』, 고양: 학고방, 2023.

한길연·김지영·정언학(교주), 『유씨삼대록』, 서울: 소명출판, 2010.

『제일기언』.

『화산선계록』.

2. 논저

김강은, 「〈천수석〉에 구현된 국가의 존망과 가문의 존재 양상」, 『은지논총』 69, 2021. 141~172쪽.

김강은, 「왕조교체기 소재 국문장편소설에 나타난 가문의 역할 변화와 그 의미: 〈화산선계록〉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69, 2025, 61~96쪽.

김문희, 『한국 고전소설의 중국 역사 소설화 방식과 동인』, 파주: 보고사, 2022.

김은일, 「양문록계 소설연구」,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김태영, 「〈유씨삼대록〉에 형상화된 ‘진양공주’의 서사적 기능과 의의」, 『고소설 연구』 51, 2021, 323~360쪽.

데이빗 베빙턴(저), 김진홍·조호연(역), 『역사관의 유형들』, 서울: 한국기독교생활 출판부, 1997.

마르티나 도이힐러(저), 이훈상(역), 『한국 사회의 유교적 변환』, 서울: 아카넷, 2003.

마크 피터슨(저), 김혜정(역), 『유교사회의 창출』, 서울: 일조각, 2000.

박길희, 「17세기 조선 사회의 강박증과 공백의 출현」, 『한국민족문화』 89, 2024, 63~89쪽.

- 박숙례, 「〈유이양문록〉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4.
- 박영희, 「소현성록 연작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 박일용, 「『유씨삼대록』의 작가의식 연구」, 『한국고전문학』 12, 1997, 187~220쪽.
- 서정민, 「〈보은기우록〉과 〈명행정의록〉의 연작 양상」, 『관악어문연구』 28, 2003, 269~288쪽.
- 서정민, 「〈명행정의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신철우, 「〈유씨삼대록〉에 나타난 멜랑콜리의 형상화와 의미」, 『동아시아고대학』 62, 2021, 9~33쪽.
- 유인선, 「〈명주보월빙〉 연작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 이이화, 『민란의 시대: 조선의 마지막 100년』, 서울: 한겨레출판사, 2017.
- 이지영, 「조선시대 한글장편소설에 구현된 가상세계로서의 역사」, 『고소설연구』 50, 2020, 111~137쪽.
- 이지영, 「낙산재본 고전소설에 나타난 허구적 이야기세계의 서사전통」, 『장서각』 49, 2022, 36~60쪽.
- 이지하, 「〈보은기우록〉의 구성적 특징과 작가의도」, 『국제어문』 94, 2022, 195~220쪽.
- 임치균, 『조선조 대장편소설 연구』, 서울: 태학사, 1996.
- 임치균, 「대장편소설의 수신서적 성격 연구」, 『한국문화연구』 13, 2007, 83~111쪽.
- 장현근, 「중국 고대의 충군 사상과 충효 관념의 정치화」, 『정치사상연구』 21-2, 2015, 75~97쪽.
- 정길수, 「17세기 長篇小說의 형성 경로와 장편화 방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정재윤, 「〈華山仙界錄〉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23.
- 조용호, 『삼대록소설연구』, 서울: 계명문화사, 1996.
- 조현철·임병학, 「조선 후기 권선서와 민화문자도의 윤리의식」, 『인문과학』 69, 2018, 249~278쪽.
- 주수민, 「조선 후기 가문소설의 시·공간 배경과 재위 황제」, 『어문연구』 48-2, 2020, 83~110쪽.
- 차하순(편), 『사관이란 무엇인가』, 서울: 청람문화사, 1980.
- 채운미, 「〈천수석〉에 나타난 영웅의 문제적 형상」, 『국문학연구』 27, 2013, 191~232쪽.
- 채운미, 「한글장편소설 속 선계(仙界) 형상화의 일고찰: 〈천수석〉과 〈명행정의록〉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47, 2019, 41~75쪽.
- 최어진, 「〈유씨삼대록〉 진양공주 인물형상 재론」, 『고전문학연구』 67, 2025, 269~298쪽.

한길연, <유씨삼대록>의 죽음의 형상화 방식과 의미, 『한국문화』 39, 2007, 1~30쪽

한길연, 「대하소설의 자료사적 궤적과 공공화 방안: 유씨삼대록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42, 2016, 5~45쪽.

한길연, 「<유씨삼대록>의 '진양공주'의 '이상화' 양상 연구: <사씨남정기>의 '사씨'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7, 2018, 169~202쪽.

한길연, 「낙산재본 장편소설의 여성 길들이기와 여성의식으로의 專有 양상: 장편소설의 吉服 모티프를 중심으로」, 『장서각』 49, 2023, 62~85쪽.

한승훈, 「조선후기 변란의 종교사 연구: 추국 자료로 본 반란과 혁세 종교」,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1~371쪽.

허순우, 「<현몽쌍룡기> 연작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3. 기타

담양군 한국가사문학 DB, <http://gasa.go.kr>.

국문초록

조선 후기 가문소설 중에는 왕조의 흥망을 순환적으로 바라보는 역사관을 구현한 작품들이 있다. 이러한 순환론적 역사관의 구현 양상은 치세와 난세의 반복이 드러나는 양상과 치세 이후 곧 난세가 도래하는 것이 명시되는 두 양상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작품인 〈소현성록〉과 〈천수석〉 연작에서는 가문이 왕조의 흥망과 함께 명예를 회복하여 영속성을 획득하거나 재흥하게 된다. 후자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작품인 〈유효공선행록〉과 〈보은기우록〉 연작에서는 왕조의 쇠퇴가 드러난다.

이러한 순환론적 역사관의 구현은 그 자체로 작품의 감정적 여운을 결정하고, 왕조와 가문의 관계가 가변적임을 성찰하게 하여 충효 이데올로기에 대한 가상의 질문을 드러낸다. 그리고 구현에 대한 가문의 반응을 통해 작가의 역사관과 작품이 지향하는 가치관이 드러난다.

이를 통해 일부의 가문소설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수용을 넘어, 역사적 담론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해석을 보여 주었다고 할 수 있다.

투고일 2025. 7. 4.

심사일 2025. 8. 7.

게재 확정일 2025. 8. 26.

주제어(keywords) 가문소설(late Joseon family novels), 순환론적 역사관(cyclical view of history), 역사적 담론(historical discourse)

Abstract

Implementation of Cyclical Historical Perspectives in Family Novels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Its Significance

Jung, Jaeyoon

Classic Korean family novels from the late Joseon period embody a worldview in which the rise and fall of dynasties are regarded as cyclic. The manifestation of this cyclical view of history can be divided into two modes: one reveals the repeated alternation between periods of stable rule (治世) and turbulent times (亂世) while the other demonstrates how, immediately following an age of order, an era of disorder inevitably ensues. Representative works, such as *Sohyeonseongrok* and the *Cheonsuseok* series, exemplify the former mode where the family regains its honor and achieves continuity or revival in tandem with the fortune of the dynasty. By contrast, works, such as *Yubyogongseonhaengrok* and the *Boeungiurok* series, illustrate the latter pattern, highlighting the decline of the dynasty. The realization of this cyclical historical perspective determines the emotional resonance of these works, prompting reflection on the mutable relationship between dynasty and family as well as generating implicit questions about the ideology of loyalty and filial piety. Furthermore, through the family's response to these historical circumstances, the author's own historical views and value orientation toward the work are revealed. Some family novels go beyond merely accepting historical events as facts; they demonstrate a profound understanding and interpretation of the historical discourse.